

200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1~4교시 정답 및 해설 (2학년)

• 1교시 언어 영역 •

1	4	2	1	3	1	4	3	5	3
6	5	7	5	8	4	9	3	10	1
11	3	12	4	13	2	14	5	15	2
16	1	17	5	18	5	19	1	20	3
21	4	22	4	23	4	24	3	25	2
26	5	27	2	28	1	29	3	30	1
31	5	32	5	33	4	34	5	35	3
36	3	37	1	38	2	39	4	40	2
41	5	42	1	43	4	44	2	45	5
46	4	47	2	48	4	49	3	50	3
51	5	52	1	53	5	54	2	55	1
56	3	57	2	58	4	59	2	60	4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은 수업의 일부분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자 오늘은 베틀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 번 볼까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있었던 베 짜는 기구이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기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학생들 : 선생님, 단순한 베 짜는 기구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지요?

선생님 : 응, 이 베틀에는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이 깃들어 있거든. 자,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명칭들을 배워보지요. 어떤 것부터 설명해 줄까?

학생들 : 선생님, 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 응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부티**라고 하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실이 들어 있는 **북**이고, 왼 손에 쥐고 있는 머리빗처럼 생긴 것은 **바디**라고 한단다.

학생들 : 선생님, 아낙네의 오른 발 신발 끝에 줄이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 그래. 아낙네는 줄이 매달린 신발을 신는단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신발을 당겼다 놔다 하지. 줄이 당겨지면서 **잉앗대**라고 하는 것을 들어 올리게 되는거야.

학생들 : 선생님 그러면 옷감은 어떻게 짜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 그래. 아낙네의 맞은편에 실을 감아 놓은 H자 모양의 기구가 보이지? 그것을 **도투마리**라고 하는데, 거기 감긴 실들이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쭉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일거야. 그 중 하나를 잉앗대가 위로 들어 올린 거지. 만약 아낙네가 신발을 놓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자그마한 길이 만들어진단다.

학생들 : 아, 거기에 북을 집어넣는 거군요.

선생님 : 그렇지, 손에 들고 있는 북을 가로로 던지는 거지. 그리고는 한손에 잡고 있는 바디를 당기면 가로줄 세로줄 촘촘하게 베를 짤 수 있는 거지. 보통 한 필의 옷감을 짜기 위해 아낙네들은 보름 정도를 베틀에 매달려 살았단다. 다음 시간에는 베를 짜면서 불렀던 베틀노래를 배워보도록 하자.

1. [사실적 정보의 확인하기]

[출제의도] 수업을 듣고 수업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수업 내용을 보면, 선생님은 베틀에 얹힌 아낙네

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 하면서 베틀의 명칭을 설명하고 있다. 순서대로 보면 ㉠은 낱실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잉앗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실을 감아놓은 ‘도투마리’에 해당하며, ㉢은 빗처럼 생긴 ‘바디’가 되며, ㉣은 짠 베를 마는 ‘말코’에 해당한다. ㉤은 허리에 두르는 ‘부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생님의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말코’가 된다.

<2번>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철수는 조금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왜 안 될까? 예습도 열심히 하고, 어제는 밤 새워 공부도 했는데.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여학생 : 혹시 너, 방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저녁형 인간이 맞긴 하니?

남학생 : 저녁형 인간?

여학생 : 왜 있잖아. 너처럼 밤에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남학생 : 아닌데. 사실 난 아침에 공부가 더 잘 돼. 어제는 그동안 안 본 게 너무 많아서 그랬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은 편이니까 믿었는데....

여학생 : 아, 알았다.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평소에 안 하면 다 까먹는 거 너 몰랐구나. 들어봐.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인간은 배운 지 10분이 지나면서 망각이 시작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날아가고, 하루가 지나면 70% 정도를 잊어버린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날아가서 채 20%도 안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잖아. 가령 Bear라는 단어와 무언가를 베어 먹는 꿈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방법 같은 거.

남학생 : 그건 나나 철수도 똑같은 거 아닌가?

여학생 : 끝까지 들어봐. 그런데 수업 후 바로 복습을 하면 기억이 하루 동안 유지되고, 다음 날 다시 복습을 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이 유지된대. 거기에 일주일 뒤 다시 복습하면 한 달, 한 달 뒤에 복습하면 무려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다는 거야. 그러니 너처럼 몰아서 베퉼치기 하는 애는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지.

남학생 : 아, 그렇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공부할 때에는 뭐니뭐니해도 ()

2. [이어질 내용의 추리하기]

[출제의도]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이어질 내용을 추리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 대화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이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남학생의 학습 습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남학생은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반복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여학생은 에빙하우스의 이론을 들어 배운 내용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가까운 답은 배운 내용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백인 선교사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백인 선교사가 인디언 아이들을 데리고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만큼 아이들도 열심히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지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의 시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모르는 것은 의논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시험 볼 때에는 모른다고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남에게 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남을 생각해 준다고 자기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도 안됩니다. 이는 모두 비도덕적인 행위로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의논해 가며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는 시험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결해야지, 자기만 시험을 잘 보겠다고 남에게 답을 보여 주지 않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인 선교사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3. [정보의 중심 내용 적용하기]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백인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알려 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 선생님은 그러한 아이들의 행동이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일 뿐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시험은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번> 이제 여러분은 기획 취재를 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 커 : 최근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자세한 보도에 김한국 기자입니다.

김한국 : 네, 지난해 둘째 아이를 낳은 김나라 씨는 시 보건소에 출산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에는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싫지 않은 반응입니다.

산 모 : 사실 아이를 더 가져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격려금을 받으니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한국 : 이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 줘도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사람은 30%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책도 한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각종 혜택을 통해 1995년 1.7명이던 출산율을 지난해 1.94명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출산 양육이 여성만의 몫이라는 전근대적인 인식과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민 : 아이는 갖고 싶지만 키울 생각을 하면 망설여지네요. 거기에 집도 장만해야 하고, 다니는 직장 문제도 있고.....

김한국 :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수당을 도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우리 방송 김한국 기자였습니다.

4. [사실적 정보의 확인하기]

[출제의도] 뉴스를 듣고, 뉴스 제작을 위한 메모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뉴스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설문 조사의 내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사례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5-6번> 이번에는 ‘유전자 정보 은행’과 관련된 라디오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유전자 정보 은행’과 관련하여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교수님 ‘유전자 정보 은행’이 꼭 필요한 겁니까?

남교수 : 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의자를 찾지 못한 사건의 경우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보 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여교수 :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처벌 받은 사람의 DNA를 관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의 유전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닌가요?

사회자 : 그렇군요. 필요성 못지않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군요. 그런데 과연 유전자 정보 은행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나요?

여교수 :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유전 정보와 비슷한 주민등록이나 지문을 수사에 활용해 왔습니다만 어디 강력 범죄가 줄었습니까? 정보 은행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남교수 :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유전자 정보 은행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범인 검거율이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의 범인들을 반드시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보 은행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교수 : 교수님은 좋은 면만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인권 침해 때문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보 은행의 속성상 입력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주를 보십시오. 초기엔 21개의 범죄를 대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107개 항목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남교수 : 물론 국민의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데도 용의자로 몰려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권 문제를 말씀하시는 데 관련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한다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두 분의 토론이 치열하신데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몇 분의 전화 받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 [공통적인 전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유전자 정보 은행에 대한 남교수와 여교수의 주장을 보면, 남교수는 유전자 정보 은행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고, 여교수는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를 보면, 남교수는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정보 은행의 경우 강력 범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여교수는 정보 은행은 속성상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이미 잡음이 일고 있다며 정보 은행의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두 사람은 유전자 정보 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토론에서 남교수는 유전자 정보 은행을 통해 강력 범죄를 예방 혹은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교수는 정보 은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쓰 기]

7. [자료를 보고 주제 연상하기]

[출제의도] 세 개의 자료를 보고 연상되는 공익 광고 문구의 적절성을 파악함으로써, 쓰기의 주제 파악에 필요한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위의 그림은 ‘도로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차선과 반대로 안전 거리 유지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는 다른 차선의 장면’을 표현한 것이며, 아래의 왼쪽 그림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그림은 ‘원고지에서의 띄어쓰기’와 ‘떨어질수록 좋다.’란 문구를 통해 ‘거리’ 즉 적당한 간격의 필요성을 표현한 그림이다. 따라서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안전 거리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바람직한 교통 문화 정착 관련 공익 광고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간 절약’, ‘갓길 주행’, ‘앞지르기’, ‘차선 위반’ 등의 내용은 위 자료의 일부에서만 연상이 가능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8.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설정된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운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실태의 원인 분석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의식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계화 시대의 적응 노력 강화하기’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9.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주어진 개요의 외국인 환자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에서 ‘환자 유치, 광고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근거 자료로 언어 장벽이나 까다로운 국내 병원 이용 절차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도적 규제란 법률이나 규범과 같은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언어 장벽과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까다로운 입국 절차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0.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글쓰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제시한 그림은 ‘실용화되어선 안 될 경고문’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화에선 연못 속에 살던 붕어 두 마리가 서로 싸워 한 마리가 죽어 연못이 썩으면서 결국 다른 붕어도 죽게 된다는 내용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자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삶, 뒤의 자료에서는 붕어와 붕어(인간과 인간)의 협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은 ㉠이다.

11. [영상물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출제의도] 영상물 제작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보기>에 따르면 영상물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2부에서는 한글이 ‘세계 속의 언어’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2부의 내용에서 ‘창조적 표음 문자’라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것이지, 세계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2.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각 수준별 고쳐 쓰기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은 ‘고마움을’이라는 표현을 넣어주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고, ㉡은 ‘깨달아지게’는 ‘깨달아지다’라는 피동표현에 사동 표현인 ‘~게 되다.’의 형태가 결합한 형태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에는 앞뒤 문장을 고려했을 때 역접의 의미가 와야 한다. 기념일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내용인데 ㉣과 같은 표현은 주제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그러나 ㉤은 앞뒤 문장을 고려했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3. [어휘 의미의 용법과 용례 찾기]

[출제의도] 용례로 제시된 어휘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ㄱ은 ‘둘러쌓여 막혔던 것이 갈라져서 무너지다.’ 또는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뚫어지거나 찢어지다’의 의미이고, ㄴ은 ‘거죽이나 겉이 벌어져 갈라지다.’의 의미이다. ㄷ은 ‘박수, 웃음, 울음, 소리 따위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다.’의 의미이고, ㄹ은 ‘싸움이나 사건 따위가 갑자기 벌어지거나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보기2>의 A는 ㄴ의 용례이고, B는 ㄹ의 용례이다.

14. [어휘의 쓰임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장 속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여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청결(淸潔)은 ‘맑고 깨끗함’의 뜻이고, 고결(高潔)은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함’의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마음속에서 내뿜는 눈물’은 ‘고결(高潔)하다’의 뜻이므로 ‘청결’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다.

[현대시]

[15~19] 출전 : (가)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나) 박재삼, 「日月 속에서」

(다) 박두진, 「향원」

15.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 작품을 비교하여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가)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을 주겠다.’는 문장을 반복하여, 자신의 행복에 취해서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더불어 살아가

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다)는 ‘~을 ~ 기 다려도 좋으랴?’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현실의 대립과 갈등이 극복된 평화와 화합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의 공통점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16. [화자의 태도 추리하여 적용하기]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추리하여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의 ‘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배려도 베풀 줄 모르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이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몸을 살라 다른 이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연탄 한 장’ 같은 삶, 즉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가)의 ‘너’에게 들려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힘겨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이다.

17. [대상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적 대상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화자는 항상 말이 없이 짜증도 내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산’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다)의 화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뒤엉켜 있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산’은 이런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를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산’과 ‘강’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또한 자연은 췌바퀴 같이 되풀이되는 세월 속에서도 늘 새로움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나이 오십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방어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즉, 자연이 천편일률 속에서도 새롭듯이 자신도 오십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반복되는 세월 속에서도 새로울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에서 시인이 반복되는 세월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9.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화자가 기다리는 ‘화염’은 2연과 마지막 연의 의미를 연관 지어 볼 때, 온갖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평화롭게 사는 이상 세계를 이루어내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평화와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으며,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꽃을 상징한다. 따라서 ‘화염’을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 학]

[20~23] 출전 : 손병주, 「오존홀은 왜 남극에서 더 뚜렷할까

20. [중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널리 알려진 오존홀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글이다. 즉 북반구에서 주로 프레온가

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존홀은 왜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 생기냐는 흥미로운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글 전체를 통해 그 이유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문제는 ‘오존홀이 남반구에서 더 뚜렷한 이유는 무엇인가?’로 보아야 한다.

21. [세부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담겨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산소 분자가 자외선에 의해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산소 원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는데, 이를 오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오존도 자외선에 의해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로 분해되고 분리된 이들은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오존의 생산과 파괴의 절묘한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층이 바로 오존층이다. 이곳에서 오존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가 함께 존재해서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2. [정보의 확인과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극 와동’은 남반구뿐만 아니라 북반구에도 생기지만, 북반구에서는 그리 강하게 발달하지 않는다. 동서로 가는 바람의 흐름을 높은 산맥이 막아서 남북방향의 흐름이 발생해 강한 강풍대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면 물이 바위 주변으로 흩어지는 현상’과 가장 유사하다.

23. [정보 추리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남극의 겨울은 햇빛의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 겨울이 지속되면 자외선의 양이 적어서 오존의 파괴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염소 원자 하나가 10만개의 오존을 파괴하므로 염소 원자가 없으면 성층권 오존층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다음으로 지구의 자전이 없으면 극 와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오존홀 형성의 큰 원인이 되는 극성층권 구름이 발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위도의 풍부한 오존이 남극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극 주변이 평평한 지형으로 되어 있으면 극 와동이 발달할 수 있어서 남극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남극의 오존홀이 없어진다고 해서 북극의 오존홀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은 다른 지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인 문]

[24~27] 출전 : 김일수, 「정당 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24. [집필의 목적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우리나라 정당 방위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면 자기 보존 사상과 법이 무엇인가를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당 방위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고,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여야 한다며,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이다. 글쓴이의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볼 때,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밝힌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5.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사례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사례는 말다툼을 했던 길동이와 걱정이 가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진 길동이가 막대기를 휘둘러 걱정이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주어진 공격 위협에 비해 지나치게

대응한 과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있는,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26. [용어 설명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용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쓴이는 정당 방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방어자가 방어 행위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5문단과 6문단에서 밝히고 있다. 방어 행위가 정당 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가장 경미한 수단, 규범적으로 요구된 행위이어야 하며, 공격과 방어가 극단적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어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것은 위의 조건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방어 행위이다.

27.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글에 사용된 어휘 중 어려운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 ‘제압(制壓)’의 사전적 의미는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함’으로 ‘제어하여 누르다’라는 의미이다.

[현대 소설]

[28~32] 출전 : 박완서, 「아저씨의 훈장」

28. [소설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화자인 내가 병문안 갔을 때, 나를 은표로 착각하고 ‘은표야, 아아, 은표야’ 부르는 부분에서 평소 장조카만을 생각하고 전통적 가치관에 젖어 있던 너우네 아저씨가 북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부분에서 너우네 아저씨의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인물의 심리 변화를 그려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9. [소설의 장면 추리·상상하여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서 일어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아저씨가 동향인의 모임에서 젊은 사람과 다투었는지의 여부는 위 글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저씨가 전통적 가치관에 젖어 사는 인물이므로 젊은이와 다투기보다는 훈계하려고 했을 것이다.

30. [인물의 대사가 가지는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언행에 대한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피난을 내려올 때 자신의 아들보다도 장조카를 데리고 올 정도로 전통적 가치를 신봉했던 아저씨가 자신의 아들을 간절히 불렀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두고 온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지나온 삶에 대하여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아저씨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아저씨가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31. [인물의 특성을 판단하는 근거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특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너우네 아저씨는 자식보다도 장조카를 중시한다. 장조카를 공부시키고 키운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거만하고 당당하던 아저씨는 결국 조카에게 버림받은 외롭고 쓸쓸한 아저씨로 변한다. 그러나 ㉠은 외롭고

쓸쓸한 아저씨의 모습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아저씨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32. [인물 간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 간의 심리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세라 젊은 사람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에서 나는 아저씨에 대해서도 은표가 아닌 성표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나왔다고 자랑하는 아저씨의 모습에서 성표를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 어]

[33~37] 출전 : 이기문, 「국어사개설」

33. [글의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제시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근대 국어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인 근대 국어의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성적, 문법적, 어휘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와 달리 시대가 변화하면서 문법 체계가 바뀌고, 어휘의 변화가 많았다. 문화 교류의 결과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법 체계의 간소화를 지향하였고, 경어법은 존경법·겸양법·공손법의 체계에서 존경법과 공손법의 체계로 바뀌었다.

34. [뒷받침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 속의 판단에 대한 뒷받침 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중싱(衆生)은 원래 모든 살아 있는 무리 전체를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인간을 제외한 짐승의 의미만을 가지는 어휘로 쓰였다. 이는 어휘의 의미 변화 중에서 의미 축소의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자명종(自鳴鐘)과 천리경(千里鏡)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속한다. 망건(網巾)과 무명[木棉]은 중국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35. [내용 추리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서 ‘한자어가 지속적으로 확장’된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의 정치 문화적인 교류의 중심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특히 마지막 단락에서 문화의 주된 공급처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6. [언어의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언어의 일반적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 글은 중세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가 지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동조어(同祖語)인 영어와 독일어가 현재는 달리 쓰이고 있고, 한국어와 만주어의 사례에서 언어의 일반적 특성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과 사회마다 달리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 글과 <보기>에서 추리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각 사회의 계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37.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장 속에 쓰인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의 차이를 찾아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빠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의 경우는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식품 구입 목록에서

과자를 뺐다.”와 같은 것이 있다.

[기 술]

[38~41] 출전 : 이영완, 「조용한 초음속 비행 시대 열린다」

38. [글의 주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주제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1947년 인간이 처음으로 초음속을 실현한 이후, 지속적인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소닉붐을 2003년 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소닉붐 제거를 위해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비행기의 형태에 따른 압력차에 의해 소닉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압력차에 의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형태 변화를 시도하여 소닉붐을 해결하였다. 앞으로 소닉붐 감소 성공에 따라 조용한 초음속 비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한 글이다. 초음속 비행의 신비는 이미 1940년대 일어난 것이고, F-5E 전투기의 제작 공정은 이 글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시작 부분에서 일화를 통해 1947년 인간이 처음으로 초음속의 시대를 열었으나 소닉붐 때문에 초음속 비행기의 발달을 가져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후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결과 소닉붐의 발생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비행기의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충격파 때문에 소닉붐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압력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결국 소닉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전체적으로 일화를 통한 화제 제시, 소닉붐의 문제 제기, 실험을 통한 해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닉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내용은 없으며, 문제 발생의 원인을 시간적 순서로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40.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어떤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3문단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수면 위에 V자 모양의 물결파가 생기는 것이 배의 항해 속도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4문단에서는 수면의 물결파와 같이 비행기가 비행할 때도 V자형의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비행 속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V자 물결파와 충격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와 비행기의 형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답지엔 형태에 관한 언급은 없고 속도만 제시되어 있다.

41. [글의 내용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 [A]의 내용은 초음속 비행기의 발생 원인을 형태에 있다고 보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코 잠금’이라는 구조물을 덧대 충격파를 줄였다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비행시 압력파에 의해 발생하는 ‘뽕’하는 소리가 지상에 전달되는 것이 소닉붐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의 원인이 비행기의 형상에 있다고 보고 외형을 특수하게 만들어 감소시켰다는 내용이다. 두 글에서 소닉붐의 원인을 비행기의 무게로 보고, 무게를 줄여 소닉붐을 제거했다는 내용은 없다.

[고전 산문]

[42~46] 출전 : 작자 미상, 「심청전」

42.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청이가 눈 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 인당수에 빠진 후에 마을 사람들이 심청을 불쌍히 여겨 타루비를 세우며 슬퍼한다. 형편이 나아진 심봉사에게 뽕덕어미가 들어와 가산을 탕진하고, 심봉사는 떠돌이 생활에 나서게 된다. 심청은 옥황상제의 도움을 얻어 용궁에서 인간 세상에 꽃봉이로 떠오르게 되고, 남경 갔다 돌아오는 뱃사람들은 인당수에서 심청을 위해 제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지문의 특성은 고대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먼저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용궁이라는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부분 부분 작가의 작중 개입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봉사와 뽕덕 어미의 대화 장면은 대화체를 통해 생동감 있게 진술되고 있다. 그러나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3.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고전 소설의 장면을 연극의 한 장면으로 재구성할 경우, 연기자, 무대 배경, 조명, 의상, 분장, 음악 등을 글의 내용과 어울리게 고려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을 고려할 때 심봉사 내외가 마을을 떠나는 장면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4.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부분과 <보기>부분을 비교하면 중심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갈등 구조, 어휘의 사용 등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기>의 경우에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 놈은 낭드라도 안 시건발질가 몰라. 이것 농담이요.’라는 표현을 보면, [A]와는 달리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해학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등장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신의 딸을 잃고 무덤가에서 심봉사가 느꼈을 심정은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일 것이다. 이러한 심정을 잘 담고 있는 시는 ㉟번 이성교의 시 ‘밤비1’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직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46. [서사 구조의 유사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작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에서 기적의 주체는 병에 걸린 어머니를 구하게 만들어 준 존재, 즉 산삼동자를 보낸 ‘산신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심청전에서의 기적의 주체는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된 심청을 구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준 ‘옥황상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뱃사람을 기적을 행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예 술]

[47~50] 출전 : 손영식, 「옛다리」

47.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언급한 후, 특히 우리나라 옛 다리 중 대표적인 보다리와 홍예다리를 중심으로 구조상에 나타난 과학적인 원리와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1,2문단에 걸쳐 다리의 재료와 형식이 나타나며, 마지막 문단에 다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다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48. [핵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핵심 사항은 옛 돌다리에 나타난 과학과 미학의 절묘한 결합이다. 특히, 무지개 모양(아치형)의 홍예다리는 조형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운데 이맷돌만 빠져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과학적 수준을 짐작케 한다.

49. [대상에 대해 감상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홍예다리의 각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돌다리 가운데서도 홍예다리는 구조적으로 견고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리 좌우에 다듬지 않은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그냥 쌓아 놓는(난적쌓기) 방식으로 자연미를 살리고 있다. 특히 돌과 돌을 아무런 접착제 없이 쌓아 올려 완전한 반원형을 이루는 공법은 뛰어난 조형미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준다. 또한 다리 천장에는 물로 인한 재앙을 막고자 동물 모양의 벽사 시설(이무기돌)을 설치해 놓았다. 궁궐이나 사찰에서 주로 홍예다리를 볼 수 있는 것은 통행으로서의 기능보다 조형미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5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홍예다리의 천장 중앙에 설치한 ‘이무기돌’로서 물로 인한 재해를 막고자 설치한 벽사 시설이다. 즉, 다리 한가운데 거꾸로 매달려서 두 눈을 부릅뜨고 물을 노려보는 형상인 이 ‘이무기돌’은 주술적 기능 중 재앙을 몰아내고자 하는 원화(遠禍)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석류나무 가지 사이에 ‘돌맹이’를 끼우는 행위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원화(遠禍)가 아닌 소복(召福)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고전시가·수필 복합]

[51~55] 출전 : (가) 박인로, 「자경가(自警歌)」
(나)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다) 김교빈, 「큰 그릇이 되어 남 위한 욕심도 담고」

51.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 작품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공통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덕(德)을 닦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자신이 경계해야 할 점을 다룬 반성적 태도의 시조이다. (나)는 세속을 등지고 자연 친화의 삶을 추구하는 가사 작품이다. (다)는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 타인을 위한 삶의 자세가 진정한 군자의 삶을 밝히는 교훈적 수필이다. (가)의 화자는 명덕(明德)을 닦는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자연 친화의 삶을, (다)의 화자는 타인을 위한 큰 그릇 같은 군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이다

52. [함축적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기초가 되는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1연 초장에 쓰인 ‘명경(明鏡)’은 사람들이 돈을 들어가며 닦는 거울로, 중장의 ‘명덕(明德)’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거울은 닦을 줄 알면서, 명덕은 닦을 줄 모른다.’란 문장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명경(明鏡)’은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고 파악할 수 있다. ‘오도 가도 아닌 게오’는 ‘팔덕(八德)’이 보이는 ‘크나큰 험길’ 즉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자경가(自警歌)’ 즉 ‘스스로를 경계하는 노래’란 제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배’를 만들어 ‘길 잃은 행인’을 구하려 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화자 자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공’은 ‘화자 자신’이 된다.

53. [작품의 내용 추리하기]

[출제의도] 특정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나 태도 등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16세기 초 사대부들의 강호시기에 나타난 자연관이 결코 세속에 대한 초월과 달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글이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세속을 등진 것이 아니라 출사(出仕) 즉 다시 관직으로 나갈 기회를 기다리며 자연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성산별곡’의 주인은 수많은 성현들처럼 알 수 없는 세상의 운명에 의해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된 자신의 신세를 밝히고 있으며, 더불어 시름과 애달픔을 지울 수 없어 술을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달관의 자세로 술을 마신다는 답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보기>에 있듯 현실적 시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물인 만큼 ‘허유’를 등장시킨 것은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돌아온 자신의 삶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54.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출제의도] 수필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는 ‘공자와 번지의 대화’를 사례로 들어 ‘소인(小人)’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있다. 즉 ‘소인’이란 덕보다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필자의 견해를 공자와 번지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공자의 말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양만 나오듯이 사람 또한 특정한 틀을 가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일정한 기능 밖에 발휘할 수 없는 기능인이 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유추’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여 군자와 소인의 모습을 밝히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권유하는 글이지, 세태를 풍자한 글은 아니다.

55. [문장 속에 나타난 판단의 근거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파악을 돕는 예화(例話) 속에 나타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글의 흐름과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공자가 ‘번지’에게 ‘농사 짓는 법’과 ‘채소 심는 법’을 ‘늙은 농부’에게 물어 보라고 말한 이유는 ‘늙은 농부’가 가진 경험과 덕(德)이 소중하기에, 이를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이때 ‘번지’를 ‘소인’이라고 말한 근거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번지’는 ‘소인’이다.>, <‘소인’은 ‘덕(德)이 없는 사람’이다.>, <‘소인’은 ‘그릇’이다>, <‘그릇’은 ‘기능인’이다> 등 앞의 네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결국 <‘번지’는 기술만을 중시하고 ‘덕(德)’이 없는 ‘그릇’이다>로 귀결된다.

[사 회]

[56~60] 출전 : 김진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통계 상식 백가지」

56.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은 각종 통계 자료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숫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가 아닌 부분(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왜곡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통계 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통계의 왜곡과 오용을 막고 숫자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수, 표본의 대표성, 질문지 작성법 등에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방법은 소요 시간과 비용, 질문의 양과 복잡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로써 결과의 정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유도성 질문이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질문에 미리 깔아 놓음으로써 은연 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다. 즉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나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 질문을 찾는 것이다. ‘○○시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도달하기 힘든 기준(모든 조치)을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58. [적절한 근거 제시하기]

[출제의도]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통계 조사의 결과에 여러 오류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 표본의 대표성 여부이다. 즉, 표본만을 조사하여 전체(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올바른 추정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표본의 수가 달라지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조사자의 경험과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와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밖에 질문의 방식과 복잡도, 자료 수집 방법과 시간 등에 따라서도 오류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은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오류와 왜곡을 없애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5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좌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영향을 주어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문맥상 ‘결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0.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특정 정보에 대한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조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편리한 대로 뽑은 표본에 바탕을 둔 조사 결과와 합쳐져서 그럴듯한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오사카 지역 운전자들이 사거리에서 경적을 울리는 시간은 시간대나 자동차의 혼잡도, 개인의 성격, 표본 수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선부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가 지역에 따른 사회 심리적 차이를 강조한 것이 어떤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